

2022 학생회실 설치 보고서

기관명

임피중학교

□ 목적

-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환경 마련
-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

□ 방향

-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공간의 조성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취합을 위한 오픈된 소통공간 마련
- 학생들의 대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자치 문화 활성화

□ 기대효과

-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참여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자치 활동 보장
- 자치능력 및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함양

□ 학생회실 설치 전후 사진

학생회실 설치 전



학생회실 설치 후



학생회실 설치 후기

학생회 회장 3학년 오재형

학생회장이되고 학생회실을 갔을 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대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었을 줄 몰랐습니다. 학생회실이 있긴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회의나 학생회의 일은 특별실(학생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학생회실을 새로 만든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셨을 때 정말 놀라웠고 좋았습니다. 더구나 선생님께서 ‘학생회실이니까 학생회장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서 의견을 내주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다.’라고 하실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학생회 공간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학생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완공된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들께 몇 번이고 언제 다 만들어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조금씩 내가 말했던 의견들과 선생님과 함께 고민한 회의공간이며, 회의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들이 놓여지고, 파스텔 색상이 가져다주는 편안한 분위기와 그에 알맞은 은은한 조명까지... 학생회실이 아주 편안하고 웅장해졌다. 조명을 통해 앞에서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며 경청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마음에 들었고 학생회 일이 없을 때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책을 읽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려고 의견을 모으고 애써주신 선생님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학생회실이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자리 매겨질 것이고, 이 공간에서 얻어진 학생의 의견이 학교에 수용되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기초가 되리라는 것을 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회실을 짓느라고 고생하신 건축가분들, 선생님, 그 외 예산을 지원해주신 분들까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생회실이 임피중학교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피중학교 학생에게 좋은 학생회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회 부회장 3학년 박지유

우리 학교에 있던 다목적실(구 강당)을 새롭게 학생회실로 바꾼다는 소식에 너무 기대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목적실이 학생회실로 바뀐다면 '뭐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막상 완성된 학생회실을 보니 너무 좋아 보이고 이 공간에서 학생회의를 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학생회실에 들어갈 때 간접조명으로 인한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반겨주며, 입구에 만들어진 카페 분위기의 공간이 조성되어 친구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회의 일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계단식으로 생긴 학생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의를 하면 딱딱한 분위기의 회의가 아닌 편안하고 화목한 분위기의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이 별도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집행부가 내실있는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실이 우리 학교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멋진 학생회실 공간을 조성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회 부회장 2학년 박원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뛰어놀던 다목적실이었지만 그 공간이 학생회실이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실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회장 형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 회의를 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되어 가는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우리들의 취향에 맞게 입구가 꾸며져 있어서 얼른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회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학생회실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천정의 조명이었습니다. 별도 조명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 회의할 때 회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공간에서 회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구들과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학생회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